

# 佛腹藏物 구성형식에 관한 연구

이 선 용\*

|                              |
|------------------------------|
| I. 머리말                       |
| II. 『造像經』과 불복장물 구성 및 형태상의 변화 |
| III. 불복장물 구성의 변천             |
| IV. 맺음말                      |

## I. 머리말

불교와 관련한 모든 像이나 불화는 點眼과 腹藏을 통해 신앙과 예배의 대상이 된다. 복장이란 불상이나 불화 등의 내부공간에 넣어지는<sup>2</sup> 여러 종류의 物目<sup>3</sup>과 이때 병행되는 의식을 통

\* 수덕사근역성보관

<sup>1</sup> 중국에서는 불탑이나 불상 내부 종교용품을 가리키는 말로 ‘裝藏’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納入品’으로 언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동국이상국집』, 『동문선』, 고려시대 發願文에서 ‘腹藏’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sup>2</sup> 불상 안에 복장물을 ‘넣는다’라는 의미로 보통 安置, 또는 일본에서와 같이 納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1824년 유점사판 「造像經」 「喉鈴筒內安立次第條」와 「黃絹帽子內安立次第條」에서 ‘安立’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차이가 난다.

<sup>3</sup> 1824년 楠岾寺板 「造像經」 「諸佛菩薩腹藏壇義式條」의 「腹藏諸物解釋分齊二科說」에 ‘物’을 ‘事’라 하였는데, 여기서 ‘사’는 복장 안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물을 가리킨다.

칭하는 말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불교가 전해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복장의 정확한 시원은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오래된 복장의 용례는 2001년 탈레반 정권에 의해 파괴된 바미안 석불이다. 이 상에서 발견된 5-6세기 문자로 쓰인 『緣起經』의 파편과 사리, 직물 등으로 볼 때, 불상 안에 경전이나 사리와 같은 것을 넣는 행위는 기존의 8세기가 아닌 이보다 상당히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장이 처음 이루어지는 시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없으나 永泰 2년(766) 석조비로자나 불상의 대좌에서 발견된 〈납석제호〉를 가장 이른 연대의 복장으로 추측하고 있다.<sup>4</sup> 복장은 1241년 편찬된 이규보의 『東國李相國集』 권제 25 「洛山觀音并頌」과 고려시대 불상에서 발견되는<sup>5</sup> 발원문에서 그 용어가 등장하고 있어 이미 이 시기에 불교 의식의 하나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복장은 발원문, 전적, 사경, 다라니와 喉鈴筒,<sup>6</sup> 五寶瓠, 五穀, 五香, 五藥, 五傘蓋, 五杵 등을 비롯하여 복식, 직물, 한지 등이 발견되어 985년 일본 세이로지(清涼寺) 석가여래입상과 같이 오장육부의 형태를 만들어 불상 안에 봉안하기도 한 일본, 중국과는 다른 모습이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복장은 많은 물목 중에서도 후령통을 중심으로 한 일정한 구성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造像經』이라는 경전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장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복장에서 발견된 물목 소개와 발원문 연구,<sup>7</sup> 전적과

<sup>4</sup> 박경원·정원경, 「永泰二年鎔鐵石製蓋」, 『연보』 6 (부산시립박물관, 1983), pp. 45-62. 참조. 위 논문에서는 〈납석제호〉가 사리기의 역할을 하며, 무구정광다라니경의 안립은 소탑공양과 함께 나타나는 법사리를 안립하는 탑복장과도 유사하다고 기술하였다.

<sup>5</sup>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1276년 개운사 목조아미타불상에서 발견된 복장이 가장 이른 연대의 복장이라 언급되어 왔으나 中興 3년(883)의 목서명이 있는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상에서 복장이 발견되었다. 또한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상에서도 복장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상의 복장은 후령통의 형태, 오보병의 안립 모습, 다량으로 발견된 직물의 직조 방법 등과 〈皇明弘治四年庚戌海印寺記, 1490〉와 〈靑緋紅書重修發願文〉을 살펴볼 때, 1490년을 전후한 시기에 복장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sup>6</sup> 고려시대의 합과 통, 그리고 조선시대의 후령통을 통칭할 때에는 후령통이라 지칭하고자 한다.

<sup>7</sup> 閔永珪, 「長谷寺 高麗鐵佛 腹藏遺物」, 『人文科學』 제14-15 합집(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66. 6), pp. 237-247; 文明大, 「洪城高山寺 佛像의 腹藏調査」, 『考古美術』 第9卷 第1號(한국미술학회, 1968. 2), pp. 366-367; 姜仁求, 「瑞山文殊寺 金銅如來坐像腹藏遺物」, 『美術資料』 18(국립중앙박물관, 1975. 3), pp. 1-18; 鄭永鎭, 「莊陵寺 菩薩坐像과 그 腹藏發願文」, 『考古美術』 128(한국미술학회, 1975. 12), pp. 2-4; 洪思俊, 「瀟山無量寺 極樂殿 發見 主尊佛脚藏品」, 『美術資料』 19(국립중앙박물관, 1976. 3), pp. 29-31; 韓國文化財保護協會忠淸南道支部, 「瑞山文殊寺極樂寶殿發掘調査報告書」(1976); 崔夢龍, 「莞島 觀音寺 木造如來坐像과 腹藏遺物」, 『美術資料』 20(국립중앙박물관, 1977. 3), pp. 63-70; 洪潤植, 「朝鮮初期 上院寺文殊童子像에 대하여」, 『考古美術』 164(한국

사경, 다라니에 관한 연구,<sup>8</sup> 직물 및 복식에 관한 연구<sup>9</sup> 등 주로 개별 물목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불복장의 구성형식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sup>10</sup> 이는 복장이 불상이나 불화의 내부에 봉안되어 쉽게 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난, 훼손, 재복장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복장 구성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연구하기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현존하는 5종류의 『조상경』의 비교와 함께 복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후령통, 오보병, 황초폭자를 중심으로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복장의 구성형식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 II. 『造像經』과 불복장물 구성 및 형태상의 변화

### 1. 『조상경』의 板本 간 복장 내용 비교

『조상경』은 불교의 여러 僞經 중 하나이다. 『조상경』은 불·보살상의 구성에 따른 제반

미술사학회, 1984. 12), pp. 9-22; 윤중균, 「法住寺 大雄寶殿 三身佛 腹藏調査」, 『東垣學術論文集』5 (한국고고미술연구소, 2002. 11), pp. 127-153; 김미경, 「八公山 栢華寺 木造三世佛坐像의 腹藏物 檢討」, 『佛教美術史學』 제3집 (불교미술사학회, 2005. 10), pp. 269-291; 안병찬, 「通度寺 소장 金銅阿彌陀三尊佛像의 腹藏物 調査」, 『佛教美術史學』 제3집 (불교미술사학회, 2005. 10), pp. 257-265.

<sup>8</sup> 黃壽永, 「安城 淸源寺 高麗寫經」, 『東洋學』5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75. 1), pp. 443-454; 張忠植, 「景泰七年佛像腹藏品에 對하여」, 『考古美術』138・139 (한국미술사학회, 1978. 9), pp. 42-50; 千惠鳳, 「鳳林寺 木造如來坐像의 腹藏典籍」, 『서지학』7 (한국서지학회, 1972. 10), pp. 5-27; 朴相國, 「上院寺 文殊童子像 腹藏發願文과 腹藏典籍에 對하여」, 『韓國佛敎學』 제9집 (한국불교학회, 1984. 2), pp. 79-100; 許興植, 「1322년 새로운 佛腹藏」, 『韓國의 古文書』 (민음사, 1988), pp. 128-144; 朴相國, 「祇林寺 毘盧舍那佛像 腹藏經典에 對하여 上・下」, 『書誌學報』 창간호・제2호 (한국서지학회, 1990. 6), pp. 93-117, pp. 133-156.

<sup>9</sup> 任榮子, 「五臺山 上院寺 文殊菩薩像 腹藏遺物에 對한 小考- 주로 지고리틀 中心으로 -」, 『月刊 文化財叢冊』 第9卷 第10號・通卷82號 (일간문화계사, 1978. 10), pp. 7-17; 김영숙, 『朝鮮前期 佛腹藏織物의 理解- 黑石寺 阿彌陀佛 腹藏織物』 (미술문화, 1997); 朴允美, 『佛腹藏 織物을 通하여 본 朝鮮時代의 織物 研究』 (경상대학교대 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김영숙, 「佛腹藏物 통해 본 服飾 思想性 檢討」, 『文化財』 第35號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12), pp. 186-219.

<sup>10</sup> 개별 물목에 관한 연구가 아닌 단일 불상이나 통시대적인 불상의 복장물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시행한 논문이나 도록은 다음과 같다. 온양민속박물관, 『1302年 阿彌陀佛腹藏物의 調査研究』 (1991); 통도사 정보박물관, 『通度寺 金銅阿彌陀三尊佛像의 綜合的 考察』 (1991); 정보문화재연구원,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유물의 연구』 (1997); 온양민속박물관, 『高麗의 佛腹藏과 染織』 (계몽사, 1999); 수덕사 근역정보관, 『至心歸命禮- 韓國의 佛腹藏』 (2004); 이선용, 『佛腹藏 구성형식과 직물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 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의식과 절차에 관한 기록을 모아 체계화한 경전으로 불상을 조성할 때 필요한 복장의 구성을 밝혀 줄 뿐만 아니라 불교 의식을 구체화시킨 자료이다.<sup>11</sup>

현재까지 발견된 『조상경』은 판본 5종과 동국대학교 도서관본 필사 1종이 있다. 표제는 가장 이른 연대인 원각사 소장 1575년 龍泉寺板과 동국대학교 도서관본 1746년 金龍寺板, 1824년 楡岾寺板은 『조상경』으로, 1697년 楞伽寺板은 『觀相義軌』로, 내원정사 소장 1720년 華莊寺板은 『華嚴造像』이라 기록되어 있지만 구성 체제는 거의 유사하다.

각 판본의 기본 목차는 「大藏一覽經과 「諸佛菩薩翻經壇義式」, 「妙吉祥大教王經」이다. 「대장일람경」은 불상의 조성과 관련한 경전을 모아 또 다른 하나의 경전으로 만든 것이고 「제불보살복장단의식」은 복장의 방위에 따른 물목과 그 의미, 물목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묘길상대교왕경」은 복장의 의식 절차를 기록하고 있다. 그 외에 능가사판과 김통사판에는 「佛說佛母般若波羅蜜多大明觀想義軌」이 포함되어 있다. 능가사판은 「腹藏喉鈴八葉筒銀盒內所入諸物次第少錄條와 「喉鈴銀盒八葉筒蓋之圖」가 추가되어 있다. 특히 유점사판은 「喉鈴筒安立次第條와 「黃絹幅子內安立次第條」가 첨가되면서 후령통을 중심으로 한 복장의 형식으로 더욱 집약되었다. 또한 八葉大紅蓮之圖, 五輪種子圖, 眞心種子圖, 准提九字圖, 入悉地圖, 出悉地圖, 准提九字天圓之圖, 列金剛地方之圖 등과 같은 도해가 추가되면서 유점사판은 다른 판본들에 비해 복장에 대한 의식과 의미, 물목 등 가장 체계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표 1). 가장 늦은 시기에 간행된 유점사판은 능가사판이나 다른 판본보다 내용상 좀더 많은 복장 관계의 문헌을 종합하여 편집하였을 뿐 아니라 편집 순서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sup>12</sup>

『조상경』에 기록되어 있는 물목은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眞言, 兩面圓鏡, 舍利筒<sup>13</sup> 등 대부분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유점사판에서 앞에서 언급한 것들 이외에도 八葉蓋, 四方呪, 八葉大紅蓮呪, 天圓, 地方 등 다른 판본에서 언급되지 않은 물목이 추가되어 있다. 유점사판에서 喉鈴筒을 단일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다른 판본에는 ‘八葉筒’, ‘銀合筒’, ‘喉鈴八葉筒’ 등으로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능가사판에 ‘喉鈴八葉筒銀合’, ‘喉鈴銀合八葉筒’이라는 명칭이 첨가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1626년 범주사 소조삼신불상에

<sup>11</sup> 남권희, 「佛腹藏과 納入物」, 『至心歸命禮-韓國의 佛腹藏』(수덕사 근역정보관, 2004), pp. 279; 이선이(태경스님), 「불복장의 의미와 조상경」, 『법』(불교중앙박물관, 2008), pp. 208-216에서는 「대장일람집」의 「조상품」과 「묘길상대교왕경」 등 여러 경전을 합쳐 『조상경』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경전의식집으로 만든 것이라 기술하고 있다.

<sup>12</sup> 하홍식, 「1302년 阿彌陀佛腹藏의 造成經緯와 思想傾向」, 『1302年 阿彌陀佛腹藏物의 調査研究』(은양민속박물관, 1991. 8), p. 171.

<sup>13</sup> ‘舍利筒’의 ‘筒(게) 지는 ‘筒(통)’자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同字로 추측된다.

표 1 『조상경』의 板別 구성 비교

| 구분 | 1575년<br>龍泉寺板 | 1697년<br>楞伽寺板          | 1720년<br>華莊寺板 | 1746년<br>金龍寺板        | 1824년<br>楡岾寺板       |  |
|----|---------------|------------------------|---------------|----------------------|---------------------|--|
| 포제 | 造像經           | 觀相儀軌                   | 華嚴造像          | 造像經                  | 造像經                 |  |
| 목차 |               |                        |               |                      | 重刊造像經序              |  |
|    |               |                        |               |                      | 略述鄙意                |  |
|    |               | 佛說佛母般若波羅蜜多<br>大明觀想儀軌   |               |                      |                     |  |
|    |               | 腹藏喉鈴八葉筒銀合內<br>所入諸物次第抄錄 |               |                      |                     |  |
|    |               | 喉鈴銀合八葉筒蓋之圖             |               |                      |                     |  |
|    | 大藏一覽經         |                        |               |                      |                     |  |
|    |               |                        |               | 佛說佛母般若波羅蜜多<br>大明觀想儀軌 | 金剛訶闍利觀相義軌           |  |
|    | 諸佛菩薩腹藏壇義式     |                        |               |                      |                     |  |
|    | 妙吉祥大教王經       |                        |               |                      |                     |  |
|    |               |                        |               |                      | 喉鈴筒內安立次第            |  |
|    |               |                        |               |                      | 黃絹幅子內安立次第           |  |
|    |               |                        |               |                      | 三悉地壇釋               |  |
|    |               |                        |               |                      | 佛說佛母般若波羅蜜<br>多大明觀想義 |  |
|    |               |                        |               |                      | 三十七尊說               |  |
|    |               |                        |               |                      | 點眼文諸眞言<br>·證明位目     |  |
|    | 施主秩·刊記        | 施主秩·刊記                 |               | 施主秩·刊記               | 跋·施主秩·刊記            |  |

서 발견된 발원문 3점에서 ‘喉鈴筒施主’라는 기록이 있어 유점사판이 판각되기 이전 시기부터 ‘후령통’이라는 명칭이 통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五方鏡은 모두 ‘五鏡’으로, 五寶瓶은 ‘五寶瓶’, ‘五寶裏瓶’, ‘五寶裏帛’ 등으로, 五色線은 ‘五色繩’이라 명명하고 있어 <표 2>와 같이 유점사판과 다른 판본들 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조상경』은 용천사판을 기준으로 하여 능가사판에서 복장에 대한 항목이 추가 편집되고 다시 유점사판에 여러 항목들이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칭도 재정립되어 간행된 것으로 복장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표 2 『조상경』의 편별 物目 비교

| 1575년 龍泉寺板         | 1697년 楞伽寺板                           | 1720년 華莊寺板        | 1746년 金龍寺板        | 1824년 楡岾寺板   |
|--------------------|--------------------------------------|-------------------|-------------------|--------------|
|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眞言       |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眞言                         |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眞言      |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眞言      |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眞言 |
| 兩面圓鏡               | 兩面圓鏡                                 | 兩面圓鏡              | 兩面圓鏡              | 兩面圓鏡         |
| 無孔水精(心珠)           | 無孔水精(心珠)                             | 無孔水精(心珠)          | 無孔水精(心珠)          | 無孔水精珠        |
| 五色繩                | 五色繩                                  | 五色繩               | 五色繩               | 五色線          |
| 黃絹幅子               | 黃絹幅子                                 | 黃絹幅子              | 黃絹幅子              | 黃絹幅子         |
| 喉鈴                 | 喉鈴                                   | 喉鈴                | 喉鈴                | 喉鈴           |
| 願文                 | 願文                                   | 願文                | 願文                | 願文           |
| 舍利七粒               | 舍利七粒                                 | 舍利七粒              | 舍利七粒              | 舍利七粒         |
|                    |                                      |                   |                   | 八葉蓋          |
| 舍利箇                | 舍利箇                                  | 舍利箇               | 舍利箇               | 舍利盒          |
| 八葉箇, 箇, 銀合箇, 喉鈴八葉箇 | 八葉箇, 銀合箇, 喉鈴八葉箇, 箇, 喉鈴八葉箇銀合, 喉鈴銀合八葉箇 | 八葉箇, 箇, 銀合, 喉鈴八葉箇 | 銀合, 八葉箇, 箇, 喉鈴八葉箇 | 喉鈴箇, 箇       |
|                    |                                      |                   |                   | 四方呪          |
|                    |                                      |                   |                   | 八葉大紅蓮呪       |
|                    |                                      |                   |                   | 天圓, 地方       |
| 五輪種字               | 五輪種字                                 | 五輪種字              | 五輪種字              | 五輪種字         |
|                    |                                      |                   |                   | 報身呪, 化身呪     |
| 眞心種字               | 眞心種字                                 | 眞心種字              | 眞心種字              | 眞心種字         |
| 五鏡                 | 五鏡                                   | 五鏡                | 五鏡                | 五方鏡          |
| 五寶瓶, 五寶裏瓶, 五寶裏帛    | 五寶瓶, 五寶裏瓶, 五寶裏帛                      | 五寶瓶, 五寶裏瓶, 五寶裏帛   | 五寶瓶, 五寶裏瓶, 五寶裏帛   | 五方瓶, 五寶瓶     |

## 2. 『조상경』과 불복장물 구성 및 형태상의 변화

후령통은 복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후령통과 관련한 물목으로 후령통 외부에 황초폭자와 사방주, 사방경이 있으며, 후령통 내부에 금강저, 번, 산개, 곡식, 약재 등이 들어간 동·납·서·북·중앙의 오보병이 있다. 이 모든 물목은 『조상경』에서 주요하게 언급되

표 3 후령통 인립 순서

|   |   |  |
|---|---|--|
|  |  |  |
| <p>방형 보병 위에 물목을 올려놓고 모서리를 접는다</p>   | <p>각 방위의 보병을 오색실로 감는다</p>   | <p>오보병을 만든다</p>  |
|  |  |  |
| <p>후령통에 오보병을 안립한다</p>   | <p>후령통 외부에 사방경을 오색실로 고정한다</p>   | <p>황초폭자로 후령통을 포장하여 봉한다</p>   |

는 것들로 복장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

후령통의 일반적인 구성은 우선 방형 직물인 오보병에 금강저, 번, 산개, 곡식, 약재, 향 등을 올려놓은 뒤 말아서 오색실로 감아 오방위를 나타내는 각각의 寶瓶을 만든다. 이를 합쳐 오색실로 감아 오보병을 만든 후 후령통 안에 넣고 뚜껑을 덮는다. 후령통 외부에 사방위를 가리키는 四方呪를 기록한 후 그 위에 후령통과 유사한 재료로 제작된 四方鏡을 올리고 오색실로 고정하여 방위를 표시한다. 후령통을 황색직물인 황초폭자로 포장을 하게 되는데 오색실로 감은 다음 길게 자른 한지나 직물로 封을 하면 최종 마무리가 된다(표3).<sup>14</sup>

후령통은 대부분 유사하게 발견되나 각각의 복장마다 물목의 가감이나 위치상, 재료상의 변화가 있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sup>15</sup> 복장에 따라 약간의 물목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후령통에 들어지는 위치상의 변화는 보이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대체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sup>16</sup> 구성면에서는 시대적인 차이를 보일 뿐 대부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후령통,

<sup>14</sup> <표 3>은 1639년 수덕사 목조삼세불상 중 아미타불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후령통>의 조사 과정을 역순으로 하여 처음 불상안에 봉안될 당시의 순서로 재구성한 것이다.



도1 1302년 아미타불상 <합>, 1302년,  
銀, 高 4.3cm,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사진: 필자

오보병, 황초폭자를 『조상경』과 비교하면서 시대적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후령통

후령통은 오보병을 넣는 통으로 불상의 심장이자 복장의 중심이다. 또한 『조상경』의 물목이 후령통에 놓여지는 오보병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 복장의 개념이 후령통에 집약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후령통의 재질은 능가사판 『관상의궤』에 ‘銀盞’이라 기록되어 있다.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1302년 아미타불상의 <합>(도 1)과 1346년 장곡사 금동약사여래불상의 <합>은 은제이며, 1346년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상의 <합>과 고려 말 자운사 목조아미타불상의 <통>과 같이 목제인 예들이 있어 고려시대에는 금속제와 목제가 혼용되어 나타난다. 조선시대는 1466년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sup>17</sup> 1628년 송광사 목조사천왕상, 1639년 수덕사 목조삼세불상, 1726년 삼길갑 목조관세음보살상 등에서 발견된 것을 비롯하여 그 외 대부분의 후령통이 금속제를 사용한 반면 목제의 사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sup>18</sup> 『조상경』에서 ‘은’이라는 재료의 기록은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은보다는 동이나 철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재료면에서 『조상경』과 동일하게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sup>19</sup>

<sup>15</sup> 후령통에서 발견되는 유물과 구성은 『조상경』과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5종의 『조상경』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 1824년 유점사판의 경우 후령통과 황초폭자에 놓여지는 순서를 별도로 기록하고 있고 후령통 안에 五輪種子, 眞心種子, 報身呪, 化身呪, 紺提呪, 地方, 八葉蓮, 天圓 등을 함께 넣는 것으로 되어 있어 여러 『조상경』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sup>16</sup> 배영동, 「佛壇藏儀式的構成과意味」, 『1302年阿彌陀佛壇藏物의 調査研究』(온양민속박물관, 1991. 8), p. 211.

<sup>17</sup>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에서는 成化 2년(1466) <懿淑公主發願文>과 <萬曆乙亥年重修發願文, 1599>이 발견되었다. 이 두 발원문으로 인해 문수동자상의 조성 연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문수동자상의 연대를 1466년으로 표기하였는데, 문수동자상에서 발견된 팔엽 뚜껑의 <후령통>과 <白色水晶寶瓶>은 1500년대 이후 복장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지 않아 문수동자상의 복장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오히려 고려시대의 복장과 유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장은 1466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sup>18</sup>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1778년 목조대세지보살상 복장에서는 종이로 <후령통>을 제작하기도 하였으며,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으나 대나무로 <후령통>을 제작한 예가 보이기도 한다.

<sup>19</sup> 불화 복장의 경우 복장낭을 이용하거나 액자 형태의 경우 앞뒤 배접 공간 사이에 후령통을 배치하는데, 대부분



도2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상 <팔엽통>, 1346년, 木, 高 7cm,  
수덕사 근역성보관 소장, 사진: 『韓國의 佛腹藏』

도3 자운사 목조아미타불상 <목제통>, 고려 말, 木, 高 17.2cm,  
자운사 소장, 사진: 『韓國의 佛腹藏』

후령통의 형상적인 측면은 5종의 『조상경』에서 모두 ‘합’과 ‘통’이라 기록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고려시대 복장 중 앞서 살펴본 1302년 아미타불상, 1346년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상(도2), 1346년 장곡사 금동약사여래불상에서 발견된 것은 모두 뚜껑이 있는 합 의 형태이다. 뚜껑은 평평하고 몸체는 둥글어 마치 주발과 같은 형상이다. 고려 말 자운사 목조아미타불상의 후령통은 전체적으로 장방형의 <목제통>(도3)으로 사방의 중간 부분이 배가 부르고 뚜껑이 있다. 고려 말 조선 초로 추정되는 출처미상의 <목제통>의 경우 바닥 전체가 평평하고 낮은 원통형의 합이지만 앞서 언급한 합과는 다른 형상이다. 이러한 특징은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상 복장에서 발견된 <彌陀佛腹藏人物色記>(도4)<sup>20</sup>에서도 ‘同’<sup>21</sup>으로 기록되

중이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오보병, 사방경, 황초폭자까지 모두 한지를 사용하며, 방위색은 한지에 채색하여 표현한다.

<sup>20</sup> <미타복장입물색기>의 목서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青木香   ◦藿香   ◦沈香   ◦乳香   丁香
- 苜蓿子   ◦苜蓿子   ◦人蔘   ◦甘草   ◦桂心
- 瑠璃      琥珀      眞珠      ◦生金      ◦生銀
- 大黃      ◦小黃      牛黃      雌黃      雄黃
- 心鏡   心珠   喉鈴
- 五色帛
- 五色糸十五尺
- 乾飯 五穀
- 黃幅子   舍利同   八葉同



도4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상(미타복장입물색기),  
1346년 紙 35.1×35.9cm,  
수덕사근역정보관 소장, 사진: 『韓國의 佛藏』



도5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후령통),  
1466년 鐵 高10.8cm,  
월정사정보박물관 소장,  
사진: 『월정사정보박물관 도록』

어 있지만 발견된 형태는 합인 것으로 보아 당시 ‘합’과 ‘통’은 형상적인 면이나 명칭에 있어서도 혼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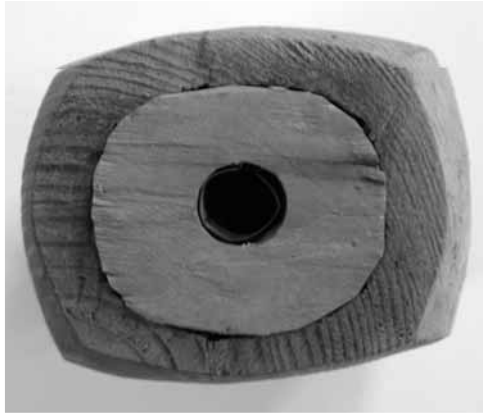
조선시대의 후령통은 유점사판에서 ‘후령통’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塑像에는 圓筒을, 불화에는 方筒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sup>22</sup> 1466년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의 〈후령통〉(도5)을 비롯하여 1639년 수덕사 목조삼세불상, 1710년 북대 고운암 목조석가여래상, 1726년 삼길암 목조관세음보살상 등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 후령통의 형태는 바로 뚜껑이 있는 긴 원통형으로 이전 시기와 다른 형태이다. 각각의 후령통에 따라 몸체의 길이 변화는 있지만 조선 초기부터 이미 합의 형태에서 변화되어 원통형으로 정착되고 있다.

고려시대의 합에서 조선시대 원통형으로 형상이 변화되면서 喉穴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青花 大青 大綠 朱紅 黃漆  
南粉 漆 阿膠

<sup>21</sup> 〈미타복장입물색기〉에 기록된 ‘八葉同’의 ‘同’자는 함께 기록된 ‘舍利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筒’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同字로 추측된다.

<sup>22</sup> 『造像經』, 『諸佛菩薩藏義式條』, 1824년 楡岾寺板, p. 19.  
“……筒體形可容五瓶許造之 塑像用圓筒 畫幀用方筒……”



도6 자운사 목조아미타불상〈목계통 후혈〉, 고려 말  
木, 자운사 소장, 사진: 필자



도7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상〈후령통〉,  
1490년, 銅, 高 33.8cm, 해인사성보박물관 소장.  
사진: 『海印寺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특별전-誓願』

후혈은 유점사판에서 후령통을 설명하면서 ‘팔엽개 위 중앙에 후혈을 통하게 한다<sup>23</sup>’라는 기록에 처음 등장하며, 기록상으로 볼 때 그 모습은 자세히 알 수 없다. 고려시대의 유물 중 1302년 아미타불상과 1346년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상의 〈합〉에는 뚜껑에 구멍이 없이 평평하다. 이에 반해 자운사 목조아미타불상의 〈목계통〉뚜껑에는 약 1.5cm 정도의 구멍에 금속이 둘러져 있다(도6). 반면 1466년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과 1490년 복장이 이루어진 해인사 대적광전과 법보전 비로자나불상에서 발견된 〈후령통〉(도7)을 살펴보면, 뚜껑에 구멍이 있고 그 구멍 위쪽에 관이 달린 모습으로 고려시대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후혈에 대해 『조상경』에 별다른 설명이 없어 뚜껑에 뚫린 구멍만을 말하는 것인지 관까지 포함한 의미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후령통의 뚜껑은 고려시대 구멍의 有無에서 조선 초기 이미 관이 달린 모습으로 변화된다. 관 형태의 후혈은 1569년 완도 관음사 목조보살상의 〈후령통〉, 1628년 송광사 목조사천왕상의 〈후령통〉(도8), 1649년 화계사 지장보살좌상의 〈후령통〉 등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조선 초기부터 이미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여러 합

23 『造像經』, 「諸佛菩薩翻經藏增義式」條, 1824년 楡岾寺板, p. 19.  
“具八葉蓋 蓋上中央通喉穴……”



도8 송광사 목조시천왕상 <후령통>  
1628년, 鐵, 高 12 2cm,  
송광사성보박물관 소장,  
사진: 필자

과 후령통을 살펴볼 때, 후혈은 후령통 뚜껑에 뚫린 구멍과 함께 그 곳에 연결되어 있는 관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합이나 통의 뚜껑에 구멍이 생기면서 조선시대에는 구멍 위에 관을 부착한 형태로 변화되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조상경』에서 살필 수 있는 기록에 한계가 있는 관계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후령통을 살펴볼 때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八葉蓋이다. ‘八葉’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개인소장 1322년 천수관음상의 <擧案>과 1346년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상의 <미타복장입물색기>로 모두 ‘八葉司’이라 기록하고 있다.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상의 경우 뚜껑에는 蓮子가 몸체에는 팔엽이 주사로 표현되어 있어 <미타복장입물색기>에 보이는 팔엽이 그림으로 표현된 <팔엽통>(도 2)으로 추정된다.<sup>24</sup> 자운사 목조아미타

불상 복장에서도 수은아말감법으로 도금한 <팔엽연화>(도 9)가 발견되었는데 크기로 볼 때 <목제통>의 외부에 놓였을 것으로 추측되나 <목제통>과 별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sup>2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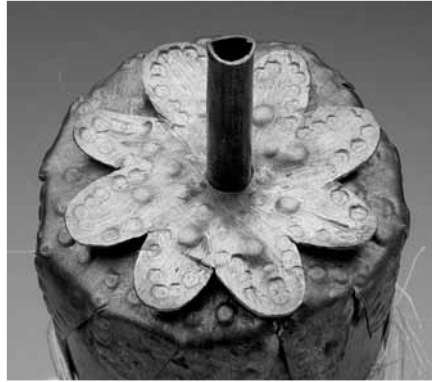
여러 『조상경』 중 유일하게 유점사판에서 사리합과 후령통에 ‘팔엽개’를 갖추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정확히 사리합과 후령통의 어느 부분에 팔엽개가 만들어지는지 알 수 없으나 유점사판에 도해되어 있는 팔엽대홍련지도를 살펴보면 ‘팔엽개라는 것은 후령통의 덮개이

<sup>24</sup>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상에서 발견된 합은 지금까지 목제합으로 명명되어 왔다. <미타복장입물색기>에는 목제함에 대한 기록이 없고 ‘八葉司’가 기록되어 있다. 실제 목제합의 표면과 뚜껑에 주사로 표현된 팔엽의 이중연꽃 잎과 지방으로 볼 때, 기록에 나타난 ‘팔엽동’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목제합은 팔엽동 즉, ‘팔엽통’으로 명명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 생각되는 바 본고에서는 ‘팔엽통’으로 바꾸어 명명하도록 하겠다.

<sup>25</sup> 김순아,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法住寺 柵相殿 舍利莊嚴具 考察」, 『佛敎美術』 18(동국대학교 박물관, 2006), pp. 21-47 참조. 위 논문에서는 법주사 팔상전의 사리장엄구에서 발견된 <금동연화타출문환형구>를 진영의 가사착상구와 여러 <팔엽연화 가사착상구>를 서로 비교 설명하면서 명칭과 용도에 대한 계고를 하였다. 논문에서는 <팔엽연화 가사착상구>에서 고리를 함께 사용한 것과 같이 <금동연화타출문환형구>의 뒷면에 가사를 고정시키기 위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가사 착용시 사용되던 물건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리호>의 받침대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자운사 목조아미타불상의 경우 별도의 고리도 없고 뒷면에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가사착상구의 일종으로 확신하기는 어려워 개별로 봉안된 복장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된다. 다만 자운사 목조아미타불상 복장이 일괄 수습되지 않고 훼손된 부분이 많아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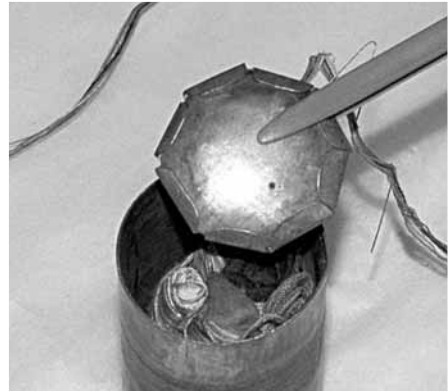


도9 자운사 목조아미타불상 <팔엽연화>  
고려 말 銀 지름 8.5cm, 자운사 소장,  
사진: 『韓國의 佛腹藏』



도10 <후령통 팔엽>, 조선 초 銅, 高 13.3cm,  
수덕사근역성보관 소장,  
사진: 『韓國의 佛腹藏』

며, 대홍련은 아니다<sup>26</sup>라고 기록하고 있다.<sup>27</sup> 만약 기록과 같이 후령통의 뚜껑을 팔엽개로 생각한다면 뚜껑을 여덟 개의 잎으로 표현한 1466년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의 <후령통>(도5)이 가장 이른 연대의 사례가 될 것이다. 출처미상의 원통형 <후령통>(도10)도 연잎 뚜껑과 연결된 부분에 연주문이 압출된 금동판을 부착하고 있어 뚜껑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 초기 이후 팔엽개는 팔엽형의 금속판으로 제작되어 후령통 내부의 오보병 위에 올려진 모습으로 발견되고 있다(도11).<sup>28</sup> 즉, 팔엽개는 후령



도11 수덕사 목조삼세불상 <팔엽>, 1639년, 銅,  
수덕사근역성보관 소장, 사진: 필자

<sup>26</sup> 『造像經』, 「妙吉祥大教王經條, 1824년 楡岾寺板, p. 33.

“以此八葉大紅蓮仰敷於筒蓋之上天圓之下所謂八葉蓋者喉鈴筒之蓋也非此大紅蓮也”

<sup>27</sup> 1753년 선암사 괘불의 경우 <후령통> 뚜껑 지체를 팔엽대홍련으로 표현하였으나 별도의 <팔엽대홍련지도>로 <중이후령통>을 싸고 있는 선암사 제석도와 같이 팔엽개는 대홍련과 별개의 물목으로 보인다.

<sup>28</sup> 조선시대 팔엽개는 팔엽으로 접고 오색실이 통하지 않게 오보병 위에 올린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1710년 북대 고운암 목조석가여래상처럼 여덟 개의 잎을 둥글게 잘라 표현하고 그 가운데에 구멍을 뚫은 후 <오보병>을 감은 오색실이 빠져 나오도록 한 예도 있다.

통의 외부에서 첩차 후령통의 내부로 이동되어 하나의 독립된 형태로 변화된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해보면 후령통은 고려시대에 명칭이 혼용되면서 합과 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조선시대에는 후혈을 갖춘 원통형으로 변화되었고 팔엽개는 후령통의 내부에서 오보병을 덮는 덮개로 변화되고 있다.

## 2) 오보병

오보병은 동·남·서·북·중앙의 보병을 지칭하며, 후령통 안에서 발견된다.<sup>29</sup> 후령통이 불상의 심장이라면 오보병은 그 심장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조상경』에서 오보병은 大日如來의 다섯 가지 지혜의 보배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쪽은 마노병, 남쪽은 마니병, 서쪽은 산호병, 북쪽은 유리병, 중앙은 수정병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유점사판에는 ‘만약 칠보가 없으면 오색 종이로 대신 조성한다<sup>30</sup>’라고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1779년 목조아미타불상에서 발견된 <오보병>으로 오방색을 칠한 모습이다. 종지로 제작된 후령통과 오보병은 주로 불화복장에서 발견되는 반면 현존하는 대부분의 오보병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모두 직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유점사판을 제외한 다른 『조상경』에서 오보병을 ‘五寶裹帛’으로도 기록하고 있어 직물의 사용에 대한 근거로도 생각할 수 있다.

오보병의 형상을 살펴보면 1346년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상의 <오보병>은 하트형, 방형, 원형, 삼각형의 다양한 형태의 직물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어 이 시기에는 모두 동일한 형상으로 정형화되지 않았던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도 12). 하지만 1302년 아미타불상과 1346년 장곡사 금동약사여래불상의 경우 정확히 오보병이 조사되어 있지 않아 고려시대 오보병의 형상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다. 이에 반해 조선시대에는 출처미상의 <오보병>과 1639년 수덕사 목조삼세불상의 <오보병>과 같이 전반적으로 방형의 단일 형상으로 나타난다.<sup>31</sup>

<sup>29</sup> 조선 후기 서산 문수사소조나한상에서는 <후령통>이 생략된 채 <황초폭자>안에 <오보병>을 넣은 모습으로 상의 底面에서 발견되었고 20세기 초반 서산 관음사 소조보살상은 오색실에 감긴 <오보병>만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복장이 안립되는 불상 내부의 공간 상의 문제로 인하여 아주 간략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추측된다.

<sup>30</sup> 『造像經』, 「諸佛菩薩變藏增義式條」, 1824년 楡岾寺板, p.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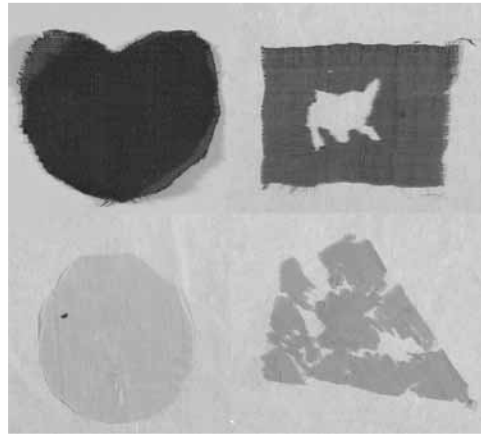
“若無七寶代以五色紙造成……”

위의 원문은 오보병이 아닌 五方瓶을 설명한 부분이다. 하지만 각 보병을 만드는 재료와 방위색이 일치하고 고 이외의 부분에 오방병에 대한 기록이 없는 관계로 오방병과 오보병은 동일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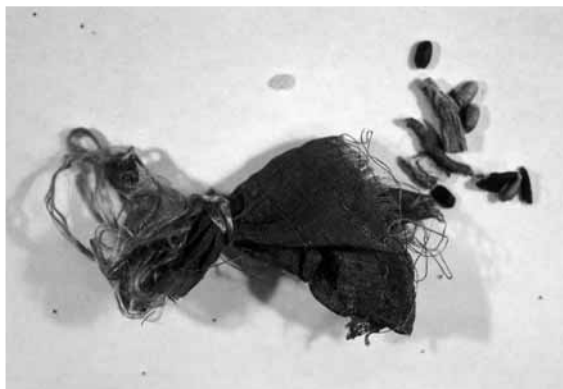
오보병 안에 여러 내용물들을 넣는 방법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모두 오색실을 사용하여 오보병을 묶었다. 고려시대의 오보병은 1302년 아미타불상과 1346년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상의 경우처럼 주머니 형태(도 13)로 묶고 있으나 조선시대는 방형직물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접은 후 원통형으로 말아 감아 오색실로 묶은 모습이다(도 14). 이와 같은 차이는 유점사판에서 오보병으로, 다른 판본에서 五寶裹瓶<sup>31</sup>으로 명명하는 등 판본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오보과 병의 ‘裹’자는 ‘꾸러미, 보자기와 같이 싸다’

라는 뜻으로 고려시대의 주머니형 오보병과 유사한 형상을 일컫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점사판에서는 후령통의 형상을 원통이라 하였는데, 실제로 1639년 수덕사 목조삼세불상의 <오보병>과 같이 모두 원통형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변화는 고려시대 합에서 조선시대 통형으로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합 형태가 주종을 이루는 고려시대는



도 12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상 <오보병>, 1346년, 絹, 수덕사근역성보관 소장, 사진: 『韓國의 佛敎復藏』



도 13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상 <오보병>, 1346년, 絹, 수덕사근역성보관 소장, 사진: 필자



도 14 능가사 제화갈라보살상 <오보병>, 1685년, 絹, 송광사성보박물관 소장, 사진: 필자

<sup>31</sup> 1490년 복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되는 해인사 목조비로자나불상에서는 방형, 원형, 반달형 등의 형태로 직물을 잘라 <오보병>으로 사용하고 있어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형태와는 차이가 있다.



도15 문수사 목조시왕상〈오보병〉, 1653년, 絹, 문수사 소장, 사진: 필자

주머니 형태의 오보병이, 조선시대는 후령통을 원통형으로 제작함에 따라 그와 유사한 형태로 오보병을 제작하는 것이 후령통 안에 오보병을 넣기에 용이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시대에는 오보병을 후령통에 넣을 때 각각의 보병을 다시 오색실로 합쳐 오방위를 구성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경우 각각의 보병은 다시 오색실로 묶어 원통형으로 만들어 후령통 안에 넣어졌다. 비록 1653년 고창 문수사 목조시왕상 〈오보병〉(도 15)의 경우처럼 〈후령통〉 외부

에 묶어 놓은 경우도 있으나 오보병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모두 합과 후령통 내부에서 발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1727년 동화사 목조삼세불상과 1753년 선암사 괘불의 〈오보병〉과 같이 원통형의 금속제 6개를 〈후령통〉 안에 부착한 예도 있다(도 16). 이는 『조상경』에서 후령통 안에 사리통을 넣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오보병〉과 〈사리통〉을 함께 제작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는 현재 다른 복장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다.

오보병에 들어가는 물목도 『조상경』에서 오약, 오곡, 오향, 오산개, 오저, 오엽, 오채번 등 모두 75가지로 기록되어 있다.<sup>32</sup> 고려시대에는 곡식, 약재, 향 등이 소량만 발견되지만 조선



도 16 (좌) 동화사 목조삼세불상 〈후령통과 오보병〉, 1727년, 銅과 絹, 동화사 소장, 사진: 통도사 성보박물관 제공 (우) 선암사 괘불 〈후령통〉, 1753년, 銅, 高 7.2cm, 선암사 성보박물관 소장, 사진: 필자

<sup>32</sup> 오보병에 들어지는 물목의 수량은 본고와 남권희 교수의 여러 논문에서 75개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조상경』에 기록되어 있는 물목 중 오방경, 오륜종자, 보신주, 화신주, 진심종자, 보병은 오보병 안에 넣어지는 것이 아닌 각 방위에 해당되는 물목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 물목들은 실제 복장의 오보병

시대는 고려시대에 발견되지 않았던 식물이나 종이로 제작된 오산개, 오저, 오채변이 오약, 오곡, 오향 등과 함께 오보병에서 발견되었다.<sup>33</sup> 특히 1458년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상에서는 잎사귀를 식물로 표현한 4점이 발견되었으나 처음 복장이 이루어질 당시 오방위가 모두 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예는 다른 복장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다.



도17 자운사 목조아미타불상〈황초폭자〉발견 모습, 고려 말. 絹, 자운사 소장, 사진: 자운사 제공

### 3) 황초폭자

황초폭자는 후령통에 모든 물목을 넣은 후 최종적으로 후령통을 감싸는 일종의 포장재이다. 〈미타복장입물색기〉에 ‘黃幅子’라는 기록이 있어 조선시대 『조상경』에 기록된 황초폭자와 동일 명칭으로 판단된다.<sup>34</sup> 『조상경』에 황초폭자의 의미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方一尺五寸’이라 크기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발견되는 유물에서는 후령통을 감쌀 정도의 크기가 대부분이다.

황초폭자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대부분 황색직물을 사용하였고 일부 불화 복장에서 황색 종이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1346년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상 복장에서 4가지 직물과 함께 가장 안쪽에서 황색직물이 〈팔엽통〉을 감싼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자운사 목조아미타불상의 경우에도 발견 당시의 사진을 보면, 청색, 황색, 홍색 등의 직물을 사용하여 〈목제통〉을 싸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도17). 또한 1346년 장곡사 금동약사여래불상에서도 오색의 직물과 황색직물이 〈합〉을 싸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사례들로 볼 때, 고려시대는 황폭자로 추정되는 황색직물과 함께 다색다수의 방형·장방형 직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조선시대는 황색의 단일직물로 후령통을 싸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부분은 견이나 면을 사용하고 있다.<sup>35</sup> 즉, 황폭자를 포함한 여러 직물을 이용하여 후령통의 포장이 이루어진 고려시대의 형식

안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보병 안에 넣어지는 물목의 수량에서 제외하여 75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sup>33</sup> 1628년 송광사 목조사천왕상에서는 방형의 직물 안에 다량의 오채변, 오산개, 오저를 생략하고 다른 물목만을 다량으로 넣은 〈후령통〉이 발견되었다. 각 병위에 해당되는 대형의 〈보병〉 한 개만을 〈후령통〉 안에 넣었다. 이 〈후령통〉은 사천왕상의 병위와 보병의 색상이 부합되도록 하여 상 안에 봉안하였다. 따라서 사천왕상에서는 중앙의 보병과 후령통이 발견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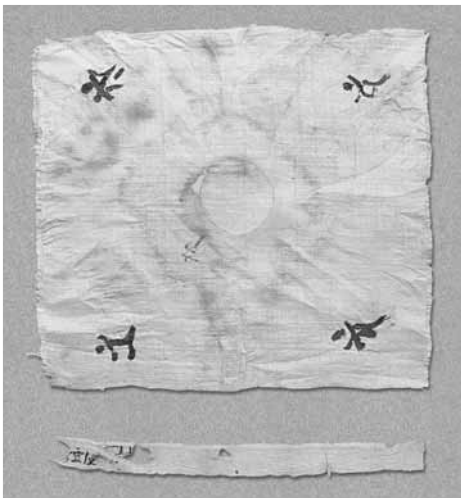
<sup>34</sup> 고려시대의 황초폭자를 명명 할 때에는 〈미타복장입물색기〉에 기록된 ‘황폭자’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은 점차 황초폭자만을 단일 포장재로 사용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36</sup>

1824년 유점사판에서는 황초폭자 안에 후령통과 여러 물목들을 안립하는 순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황초폭자 안에는 먼저 願文을 안립하고, 다음에는 寶鬘呪를 안립하고, 다음에는 天圓 地方으로 감싼 후령통을 안립하고 이를 황초폭자로 싸고 폭자의 끝과 오색실을 합하여 빙 둘러 배후에 접착한다. 그리고 오색실을 반쯤 둘러 세로로 싸고 반은 둘러 가로로 찐다. 실이 다하고 나면 准提呪를 세로로 봉하고 法印呪를 가로로 봉하여 南面에 증명인 ‘巨○○○는 삼가 봉한다’고 쓴다.……<sup>37</sup>

고려시대에는 어떤 방법으로 합이나 통을 황초폭자로 포장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물목들을 순서대로 안립한 후 마지막 봉을 하는 것으로 기록하였다. 하지만 조선시대 복장에서는 황초폭자 가운데 후령통을 놓고 후혈 부분에서 황초폭자를 모아 오색실로 감은 다음 그 위에 길게 자른 한지나 직물을 말아 감은 후 봉서를 하고 대각선이나 같은 방향의 폭자의 끝을 서로 묶어 마무리 한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 보협주, 천원과 지방, 준제주, 법인주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일부 불화 복장에서 『조상경』에 도해되어 있는 팔



도 18 삼길암 목조 관세음보살상〈황초폭자〉, 1726년, 綿, 18.9×17.6cm, 수력사근역 성보관 소장, 사진: 『韓國의 佛腹藏』

35 문명대, 「洪城高[山]寺 佛像의 腹藏調査」, 『考古美術』 第9卷 第1號(한국미술사학회, 1968. 2), pp. 366-367 참조. 1543년 홍성 고산사 목조여래불상의 경우 주황색, 흰색, 하늘색, 자주색, 황색의 오색 비단으로〈후령통〉을 싸고 오색실로 묶은 것으로 조사되어 조선시대 일반적인 황초폭자와 다른 형태이다.

36 이선용, 앞의 논문, p. 80.

37 「造像經」, 「黃綯幅子安立次第」條, 1824년 楡岾寺板, p. 35.

“黃綯幅子內先安願文 次安寶鬘呪 次安天圓地方所製喉鈴筒 以黃綯幅子包裹 並以幅子頭及五色線合 而回之曲着於背後 因以五色線 半回豎裹 半回橫裹 線盡然後 以准提呪堅封 以法印呪橫封於南面 書證明 稱巨謹封……” 유점사판에서와 같이 1746년 김통사판에도 「諸佛菩薩 腹藏壇義式」條의 ‘所入諸色’에서 후령통 외부 바닥에 원문을 놓고 황초폭자로 싸서 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불상 내부에서 대부분의 원문은 후령통과 별도로 발견되어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엽대홍련지도, 준계구자천원지도, 열금강지방지도 등을 후령통의 위와 아래를 덮은 후 황초폭자로 감싼 경우도 있으나 복장에서 발견되는 황초폭자의 포장법은 『조상경』의 내용에 비해 상당히 간략하게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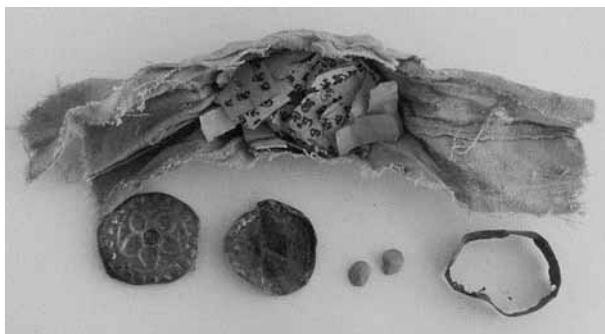
또한 조선시대 황초폭자의 표면에는 대부분 묵서나 주서로 방위를 표기하였으나(도 18) 고려시대의 황초폭자에는 방위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황초폭자의 방위 표시는 수량 및 구성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III. 불복장물 구성의 변천

후령통의 형상 변화는 오보병과 황초폭자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합 의 형태에서 통으로의 변화는 주머니형 오보병에서 원통형 오보병으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물목들을 담고 있는 오보병을 후령통에 안립하는 데 용이하다는 실용적인 의미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외적 요인보다 복장이 이루어지는 목적에 따른 복장의 시대적인 변화와 연결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복장은 사리신앙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비록 후대의 경전이기는 하지만 『造像量度經』에서 불상의 정수리 부분에 사리를 넣기도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실제 일본의 토우지(東寺) 식당 천수관음보살상과 같이 백호 부분에서 사리가 발견된 예도 있다. 바미안 석불에서도 금구장식 안에서 사리와 5-6세기 문자로 쓰여진 『緣起經』의 일부가 발견된 예(도 19)들을 살펴볼 때, 초기 복장은 탐복장과 마찬가지로 사리봉안과 함께 법사리의 역할을 하는 경전을 불상 안에 넣는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사리봉안을 목적으로 하는 복장의 형태는 우리나라의 정형화된 복장과는 다른 모습이다. 766년 석조비로자나불상의 복장물인 <납석제호>의 표면에는 無垢淨光阿羅尼를 넣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복장의 모습은 아니다. 현재까지 고려시대 이전의 복장이 발견되지 않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生身사상에 입각한 복장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의 복장은 다른 나라와 달리 오방위가 결합된 형식을 지니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고려시대는 五方과 합, 그리고 조선시대는 오방을 후령통 안으로 집중시키는 형식으로 변화되어 고려시대 이후에는 단지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형태에 국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sup>38</sup> 이는 진신사리와 법사리의 봉안, 오장육부의 봉안과 같이 불상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 생신의 實體感을 부여<sup>39</sup>하기보다 후령통과 오방위가 결합된 신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형



도 19 바미안 석불 출토 〈사리 및 경전〉, 5-6세기.  
사진: 『ガンダーラ美術とパルミヤン遺蹟展』

태입을 의미한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복장의 형식 변화는 『조상경』의 간행으로 인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오방위 개념의 도입과 각 물목의 의미 부여, 복장의 의식화 등은 경전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불교미술의 특성상 적극적인 수용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고려시대는 합 내부의 오보병이 상당부분 간략화 되어 있다. 오보병 안에 들어가는 물목들도 적은 수량과 종류를 보인다. 이외에 오륜중자, 진심중자로 방위를 표시하고 있지만 사방주, 사방경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상당히 축소된 형식이다. 이에 반해 조선시대는 오방위를 적극적으로 후령통 내에서 수용하고 있다. 오곡, 오약, 오보 등 각 방위마다 물목들이 정립되고 고려시대에 발견되지 않았던 금강저, 산개, 변이 각 보병에 넣어지는 등 모든 오방위의 개념이 포괄된 오보병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고려시대는 약화된 합 내부의 오방위를 합의 외부에서 보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정확한 방위 구성은 아니지만 다색의 직물을 사용하여 합과 통을 포장하는 방법을 통해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방위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조선시대 오방위를 후령통 내부로 집중시키고 단일의 황초폭자에 방위만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오방위가 고려시대 복장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조선시대의 복장은 오방위를 정리한 『조상경』의 간행으로 인하여 오보병을 담고 있는 후령통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복장의 핵심인 후령통, 오보병, 황초폭자의 형상, 구성 등이 고려시대와 또 다른 형태로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조상경』의 간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선 후기부터 복장 구성형식이 보편적으로 정형화되었을 것이다. 실제 불복장에서 특히 18세기 이후 집중적으로 발견되는데, 발원문, 오보병이 들어있는 후령통, 황초폭자, 약간의 다리니 등 물목구성뿐만 아니라 후혈이 있는 원통형 후령통, 오곡, 오약, 오향, 오저, 오산개, 오채번 등을 짠 오보병, 방위가 표기된 황색의 황초폭자를 단

<sup>38</sup> 이선용, 앞의 논문, p. 9.

<sup>39</sup> 박경원·정원경, 앞의 논문, p. 57.



도20 천수관음상 <거안>, 1322년 紙, 개인소장. 사진: 『1302年 阿彌陀佛藏物の調査研究』

일포장계로 사용하는 등 이 시기는 조선시대 복장 구성형식의 전형적인 면을 보여준다.

하지만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복장이 서로 단절되어 변화된 것은 아니다.

1322년 천수관음상 복장에서 발견된 <거안>(도20)에는 ‘팔엽동’, ‘후령’, ‘蓮臺座’, ‘金座子’, ‘七寶’, ‘오향’, ‘오약’ 등이 기록되어 있다. 1346년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상의 <미타복장입물색기>에는 靑木香을 비롯한 ‘오향’, ‘오약’, ‘오보’, ‘오황’, ‘후령’, ‘오곡’, ‘황폭자’, ‘사리동’, ‘팔엽동’ 등을 기록하고 있다. 『조상경』에 나타나는 물목들이 이 두 기록물에서 동시에 보이고 있는 것은 고려시대 복장과 조선시대 복장의 핵심 물목이 오보병을 담은 후령통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거안>과 <미타복장입물색기>에 기록된 ‘후령’, ‘팔엽동’은 1697년 능가사판에서 ‘후령팔엽통은합’과 ‘후령은합팔엽통’이라 하고 있어 고려시대 후령과 팔엽통이 각각의 개별 물목이었던 것에 반해 조선시대에는 이것이 결합되어 하나의 물목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실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복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표 4>를 살펴보면 <거안>, <미타복장입물색기>, 『조상경』에 기록되어 있는 ‘후령’, ‘팔엽’, ‘통(합)’이 분리되어 복장에 들어가는 형식에서 점차 결합을 통해 후령통으로 정립되는 과정을 명확히 살필 수 있다. 개별 물목으로 불상 안에 넣어지던 방식은 통으로의 형상 정립과 함께 팔엽이 오보병을 덮는 덮개로 변화되었다. 특히 조선시대 복장에서 후령이 생략되고 유점사판에서 ‘후령통’이라는 단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복장의 형식 변화에 오방위와 함께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모두 前代의 복장 구성 요소들이 서로 연계와 합일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복장이 서로 다른 구성형식을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이전의 형식을 수용하면서 변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점사판에서 후령통과 황초폭자 내에 여러 물목을 안립하는 순서를 정리하고 후혈, 팔엽개라는 것이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824년 유점사판에 이르러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복장의 물목과 구성형식을 중심으로 계

표 4 통(합), 후령, 팔엽의 형식 변화

| 연대  | 후령, 통(합), 팔엽의 분리 형식   |   | 통, 팔엽의 결합 형식  |   | 후령통과 팔엽 안림 형식  |   |
|-----|---|---|---|---|--|---|
|     | 1346년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상   | 고려 말 자운사 목조아미타불상  | 1466년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   | 조선 초기 개인소장  | 1639년 수덕사 목조삼세불상   | 1710년 북대 고운암 목조석가여래상  |
| 후령  |  |  | -   | -   | -  | -   |
| 팔엽  |   |  |  |  |  |  |
| 합·통 |  |  |   |   |  |   |

정립되어 판각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비록 1575년 용천사판을 상회하는 『조상경』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고려시대에도 불복장과 관련된 경전이 있었음을 추측 가능하게 하며, 이것이 계승·변화되면서 조선시대 『조상경』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아직까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복장의 구성형식에 대한 직접적인 변화 요인을 찾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지만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복장이 서로 단절되어 새롭게 변화된 것이 아닌 경전에 바탕을 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불 교문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조상경』을 근거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불복장의 구성형식을 후령통과 관련 한 물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복장의 구성형식을 서로 비교해 보면, 불상의 심장인 후령통은 고려시대에 형상적으로 합과 통이 혼재되어 나타나며 명칭에 있어서도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관형태의 후혈이 있는 원통형 후령통으로 정형화되었다. 특히 고려시대 ‘팔엽’, ‘후령’, ‘합과 통’이 개별 물목으로 분리되었던 것에 반해 조선시대는 후령통에 접목된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적 변화는 조선시대 초기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는 1824년 유점사판의 기록과 시대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상경』이 실제 복장 유물과 시대를 같이하여 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후령통 이외에도 오보병은 주머니형에서 원통형으로, 황초폭자는 다색다수의 직물을 사용했던 고려시대에서 변화되어 조선시대에는 방위가 기록되어 있는 단일의 황색직물을 사용하고 있다.

복장은 초기 생신사상에 입각한 사리와 법사리를 봉안하는 방식에서 변화되어 오방위와 후령통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변화는 『조상경』의 간행으로 인하여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복장의 구성형식에 있어 시대적인 변화는 분명하지만 다종다수의 물목들이 불상 내에 봉안되었던 고려시대도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합과 통 중심으로 복장이 이루어졌다. 이는 복장의 변화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라는 시대의 단절보다는 서로 연계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조상경』이 비록 조선시대에 간행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연계성을 보이는 것은 고려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경전을 바탕으로 복장 의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본고에서 미약하게나마 복장의 구성형식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조선시대의 『조상경』과 비견되는 고려시대의 자료에 대한 연구, 불복장 사상의 중심이 되는 밀교의 오방사상과 현세불교와의 연관성 등에 관해서는 연구의 부족으로 기술하지 못하였다. 향후 이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 주제어(key words) \_ 복장(腹藏 *bokjang*, installation of votive objects inside a statue), 조상경(造像經 *Josanggyeong*), 후령통(喉鈴筒 *huryeongtong*), 오보병(五寶瓶 *obobyeong*), 황초폭자(黃綃幅子 *hwangchopokja*), 팔엽(八葉 *pallyeop*), 후혈(喉穴 *huhyeol*), 팔엽통(八葉筒 *pallyeoptong*)

## 참고문헌

- 『造像經』龍泉寺板, 1575.  
『造像經』楞伽寺板, 1697.  
『造像經』華莊寺板, 1720.  
『造像經』金龍寺板, 1746.  
『造像經』楡岾寺板, 1824.  
閔永珪, 「長谷寺 高麗鐵佛 腹藏遺物」, 『人文科學』 제14-15합집,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66. 6, pp. 237-247.  
文明大, 「洪城高山寺 佛像의 腹藏調査」, 『考古美術』 第9卷 第1號 한국미술사학회, 1968. 2, pp. 366-367.  
姜仁求, 「瑞山文殊寺 金銅如來坐像剝離藏遺物」, 『美術資料』 18, 국립중앙박물관, 1975. 3, pp. 1-18.  
韓國文化財保護協會忠清南道支部, 『瑞山文殊寺極樂寶殿發掘調査報告書』, 1976.  
박경원·정원경, 「永泰二年銘鐵石製壺」, 『연보』 6, 부산시립박물관, 1983, pp. 45-62.  
洪潤植, 「朝鮮初期 上院寺文殊童子像에 대하여」, 『考古美術』 164, 한국미술사학회, 1984. 12, pp. 9-22.  
朴相國, 「上院寺 文數童子像 腹藏遺物類文과 腹藏典籍에 대해서」, 『韓國佛敎學』 제9집, 한국불교학회, 1984. 2, pp. 79-100.  
許興植, 「1322년 새로운 佛腹藏」, 『韓國의 古文書』, 민음사, 1988, pp. 128-144.  
은양민속박물관, 『1302年 阿彌陀佛腹藏物의 調査研究』, 1991.  
통도사 성보박물관, 『通度寺金銅阿彌陀三尊佛像의 綜合的 考察』, 1991.  
성보문화재연구원, 『해인사 금동미로자나불 복장유물의 연구』, 1997.  
은양민속박물관, 『高麗의 佛腹藏과 染織』, 계몽사, 1999.  
윤중균, 「法住寺 大雄寶殿 三身佛 腹藏調査」, 『東垣學術論文集』 5, 한국고고미술연구소, 2002. 11, pp. 127-153.  
월정사 성보박물관, 『월정사성보박물관 도록』, 2002.  
수덕사 근역성보관, 『至心歸命禮-韓國의 佛腹藏』, 2004.  
김미경, 「八公山 桐華寺 木造三世佛坐像의 腹藏物 檢討」, 『佛敎美術史學』 제3집, 불교미술사학회, 2005. 10, pp. 269-291.  
이선용, 『佛腹藏 구성형식과 직물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해인사 정보박물관, 『海印寺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특별전-誓願』, 2008.  
倉田文作, 『像内安立品』日本美術 No. 86, 至文堂, 1973. 7, pp. 17-114.  
静岡県立美術館, 『ガンダーラ美術とバーミヤン遺蹟展』, 2008.

腹藏이란 불상 안에 安立되는 내용물인 모든 物目과 이때 병행되는 의식을 가리키는 말로 黠眼과 함께 한국 불교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의식 중 하나이다. 복장은 발원문, 후령통, 사경, 전적, 복식, 직물 등 多樣多種의 물목들이 안립되거나 물목 안립, 의식, 조사, 계복장 등 모든 사항들이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지금까지 구성 형식을 파악하기 보다는 화사연구, 개별 물목 등에 치우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복장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喉鈴筒과 五寶瓶, 黃絹幅子의 구성 형식의 시대적인 변화와 함께 『造像經』과의 비교를 시행하였다.

우리나라는 복장은 의식 순서와 물목, 안립 순서 등을 기록한 『조상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후령통과 오보병이 복장의 핵심이자 불상의 심장 역할을 담당한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후령통의 구성을 살펴보면 고려시대 합과 통에서 喉穴과 八葉蓋를 갖춘 조선시대 圓筒形 후령통으로의 변화는 주머니형의 五寶囊瓶에서 원통형 오보병으로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진다. 또한 황초폭자는 황색 직물과 多色 직물을 함께 사용한 고려시대와는 달리 조선시대에는 황색의 단일 직물만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복장 구성의 핵심인 후령통과 오보병, 황초폭자 모두 시대적인 차이가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 『조상경』의 내용 중 합, 통, 후혈, 팔엽, 오보과병 등은 고려시대의 복장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존하지는 않지만 이미 고려시대에도 불복장과 관련된 경전이 있었으며, 이것이 계승·변화되면서 조선시대 『조상경』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후령통으로 집중된 조선시대와 같이 고려시대 또한 합과 통 중심의 일률적인 구성 형식으로 복장이 이루어졌을 것이라 추측된다.

지금까지 불복장의 구성 형식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지만 복장이 가지는 상징성과 쉽게 접할 수 있는 유물이 아닌 관계로 복장 연구의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례 발굴과 연구를 통해 복장의 형식을 규명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많은 복장 연구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Abstract

# Relics and Votive Objects Installed inside Buddhist Statues

**Lee Seonyong\***

*Bokjang* refers to objects installed inside a Buddhist statue as well as the ritual accompanying such installation. Along with the eye-painting ritual of an image, it is one of the most defining rituals of Buddhism. Objects installed inside a Buddhist statue widely varied, ranging from votive text to *huryeongtong* (a container inside which votive objects are placed), sutras and scriptures, clothes, and textiles. However, gaining a comprehensive insight into this religious practice has been rather difficult, due, on the one hand, to the state of preservation of related artifacts, and, on the other hand, to the inaccessibility of the ritual to the public. This explains why there have been few attempts at understanding the overall composition of installed votive objects, and most studies on the subject have thus far focused on the sculptors of images or individual items. This study is an attempt to discern how the practice of *bokjang* evolved over time, by looking at changes that occurred to its three central components; namely, *huryeongtong*, *obobyeong* (a bottle containing textiles of five colors), and *hwangchopokja* (yellow cloth used to wrap *huryeongtong*). These changes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standard procedures outlined in *Josanggyeong*, a Joseon-period scripture describing procedures concerning the creation and preparation of a Buddhist statue in Buddhist temples.

In Korea, votive objects were generally installed in a Buddhist statue following related

---

\* Sudeok Museum

recommendations in *Josanggyeong*, both concerning the types of objects and procedure of enshrinement. *Huryeongtong* and *oboyeong* were two central objects, considered the heart of a Buddhist statue. *Huryeongtong*, consisting of a casket and a tube during the Goryeo period, evolved, during the Joseon period, into a cylindrical container with a bottleneck-like opening at the top (*huhyeol*) and a lid decorated with eight leaves (*pallyeogae*). A similar change also occurred around the same time to *obobyeong*. Previously a pouch-shaped bottle (*obogwabyeong*), *obobyeong* acquired a cylindrical shape also during the Joseon period. *Hwanchopokja*, meanwhile, came to consist solely of a yellow-colored textile, once into the Joseon period, whereas during the Goryeo period, textiles of other colors were added to a base textile in yellow tone. *Huryeongtong*, *obobyeong* and *hwangchopokja*, the three central components of the *bokjang* custom, therefore, had varying shapes and aspects depending on the period. However, objects such as caskets (*hap*), tubes (*tong*), *huhyeol*, *pallyeop* and *obogwabyeong*, mentioned in *Josanggyeong*, were used already during the Goryeo period. What this says is that there must have been works documenting *bokjang*-related guidelines and procedures during the Goryeo period, even if none has survived to the present. *Josanggyeong* must largely draw on these earlier works as well as update them by replacing some of the obsolete elements that were no longer part of the *bokjang* custom, once into the Joseon period. It may, therefore, be possible that there was a standard *bokjang* practice in Goryeo, comparable to the one that existed in Joseon, and this practice used *hap* and *tong*, rather than *huryeongtong*, as the principal containers for votive objects.

*Bokjang* constitutes a little-understood area of Buddhist art. The complex symbolism of this religious practice has been daunting for researchers, as has been the difficulty of accessing related artifacts, which explain the state of research. With new discoveries of *bokjang*-related artifacts, future research may be able to cast further light on the practice, and this study could serve as a starting point.